



새마을 및 産業視察記 (下)

團長 洪 英 淑

<본회의사, 적십자간호학교장>

♣ 第3日

8시 30분 宿所를 출발 東萊를 거쳐 금선산 기슭에 범어사, 牧場등 평화스런 沿道周邊을 바라보면서 통도사 인터체인지를 지나 오늘의 목적지인 蔚山으로 향한다.

蔚山工業園地

직접 副市長의 환영을 받고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民族中興을 위한 工業園地의 상징적인 重化學工業園地의 발전상과 祖國近代化 작업의 진척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필름을 돌려서 보여주었다.

人口 16萬 국내최초의 工業園地로서 특히 石油化學工業의 중심지라 하겠다. 현재 30여개의 공장이 불철주야 稼動中이며 앞으로 50여개로 확장할 계획이 되었다. 立地條件으로는 1) 땅값이 싸고 기초공사가 용이한 단단한 부지이고 2) 工業用水가 풍부하고 3) 5천톤급 선박 10여척과 1만톤급 이상의 大形船 3척까지 동시에 가능케 하는 港口를 가지고 있고 4) 京釜高速道路나 中央線鐵道便이 연결되는 좋은 交通便과 5) 全國電力生産의 約 30%를 차지하는 풍부한 전력이 있고 6) 年中大部分이 서북풍이 불어 煤煙을 海上으로 飛散시켜 공해문제도 자연히 해결할 수 있어 園地로서의 適地임을 다행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蔚山石油工場

數千萬個의 파이프가 헤아릴 수 없는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한 복잡다단한 線으로 연결되고 높고 낮고한 煙筒, 동글고 원도형의 탱크, 마치 設計所의 未完成作品으로 느낌을 주는 線과 圓의 시설이다.

부지 約 93만평, 總資產은 1,081억원 從業員 2,000여명이며 原油處理 16種에 남사분해 7종으로 놀라운 사실은 年間 760억원 即 1日平均 2억원의 納稅實績이다. 中東에서 油槽船에 의해 도입된 石油는 1日 175,000배럴(약 15만드렘)을 整理 우리나라 生産量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衣食住에 따른 생활의 革新的인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었다.

韓國肥料

尿素肥料 33만톤을 생산하며 全國의 논, 밭에 필요한 양의 절반량이 된다. 10년전만 해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輸入했으나 지금은 연간 820만불(135,000톤)을 輸出하여 自立經濟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곳이다. 우리 一行은 이곳에서 300g드리의 尿素肥料 1包씩 선물로 받았다.

시내로 나와 점심을 하고 現代造船所로 향한다.

現代造船所

3일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海洋國으로서 발전

가능성은 無窮無盡하였으련만 역시 배를 만들어 야만 면모를 갖추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지 130만평 工場建物 89,000평 부대건물 25,500평, 從業員 25,000명으로 第3독크는 100만톤급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世界最大의 建造能力을 가진 드라이독크가 있다. 이곳에는 또한 時價 約 26억원의 最新 특수장비 “골리아스 크레인”(450톤을 들을수있는) 4대가 있고 年間 建造能力은 30만톤급 10척, 77년부터는 30만톤급 12척을 건조할 수 있으며 유조선 6만톤급 12척도 할 수 있고 이미 14척의 유조선 建造注文을 받아 輸出額은 年間 5억불이며 77년에는 10억불로서 배로 증가 한다는 것이다.

가장 인상깊고 우리의 底力을 과시할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한다.

浦項綜合製鐵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도약이 언제 어디까지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鐵이 人間生活에 미치는 긴밀한 관계와 製鐵産業이 自立經濟와 自主國防과도 가장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당면된 과제인듯 느꼈다.

연수원 상항실에서 公社全景의 縮少模型으로 계획실장의 브리핑을 듣고 직접안내까지 맡아주어 工場內에 들어가 제선, 제강, 압연의 생산과정을 보았다. 특히 제철의 상징인 높이 100m의 용광로 건설에 있어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完工하여 용광로에서 철물이 흘러나올때 그 감격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말씀이다.

부지 232만평 1차설비資本 1,215억원 10개의 공장과 12개의 지원설비를 갖추어 2차투자에는 1,500억원이 이미 투자되어 설비를 갖추고 있다.

연간 造鋼能力은 103만2천톤, 내년 76년 6월까지 260만톤, 79년 12월까지 850만톤이상 1,0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世界 鐵鋼史上 由來없는 많은 획기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고 2次設備가 완성되면 빙연제철동 최중소비자의 요구에도 따르고 더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公益企業으로서 1日 1억원의 收益을 올릴 計劃이라는 것이다. 종업원 4,200명 100억불 輸出,

1,000불 소독이 꿈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하는 실감을 느꼈다.

오늘의 宿泊所는 浦項觀光호텔, 우거진 松林 속에 해수욕장이 바다로 보이는 곳이다. 夕食後 間食은 경북지부장 권석혜이사님이 바나나를 준비하여 散策後의 출출한 한때의 시장기를 채워주셨다.

✦ 第4日

오늘은 日程의 마지막 날이다. 아침 정각 8시 출발, 목적지인 慶州 佛國寺까지 2시간 30분 소요됐다.

慶 州

토함산 중턱에 자리잡고 가람중 첫손을 꼽는 佛國寺를 구경하였다. 入口의 旅館, 旅人宿 등은 일정한 건물로 단장되어 옛 面貌를 一新했다. 境內는 原來 2,000간이 넘었다고 한다. 寺刹은 거의 復元된 것 같았다. 統一新羅時代에 가장 뛰어나고 지금도 유명한 釋迦塔과 多寶塔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사진도 찍었다. 佛國寺를 뒤로하여 高速道路를 지나면서 지난 新羅建國以來 99년간 찬란한 民族文化의 꽃을 피운 이곳 慶州 18만 8천 800호의 人口 80萬이 살든 서라벌, 現在 約 300여 古墳에 열킨 新羅黃金時代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始祖 慶州金氏의 傳說이 담긴 鶴林, 새롭게 建設中인 花郎의 집, 칠성대등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고적개발사업소에 도착하다. 여기서 경주의 發展像과 155號 古墳 발굴상을 필름을 통해 관람했다. 金色찬란한 관속은 고속의 박물판이다. 우리 一行은 이것을 보는데도 기침도 없고 숨도 쉬지 않은 것 같았다. 金冠 측은 사람에게서 10개의 가락지와 18개의 비취옥 등은 新羅공예의 극치라 하겠다. 삼국시대의 벽화, 청색유리컵, 달걀등 문화교류와 과학을 알아보는 귀중한 資料라 하겠다. 한편으로부터 無慮 總 1,297點이 나왔더니 하역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관리소장의 안내로 98호 포주박형 古墳의 정리 작업상황을 見學했다.

午後1時 우리나라 第3位의 人口 110만명이 되는 大邱市에 도착하여 點心을 하고 龜尾團地로

向했다. 구미인터체인지에서 2km 떨어진 곳에 해발 978m의 금오산이 우뚝 솟아 있다. 이 금오산을 평풍으로 하여 중간 기슭에 탁과룡형의 본가가 보였다.

龜尾工業團地

이 단지의 계획관리소에 실장의 案内로 四方을 바라볼 수 있는 4層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듣는다. 이곳은 경상북도 선산군에 위치한 오지(매우 깊은 산골)로서 경부고속도로가 開通되고 공업단지가 育成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산업의 心臟부로 변모를 가진 새로운 공업단지다. 단지造成의 1/3은 쓸모없는 하상층 운중제로 탁아서 얻은 땅으로서 洪水의 缺點을 보완한 이중효과를 노린 조지에서 얻은 땅이라 한다. 총규모 320만평이며 現在 29개 업체중 7개 業體만 가동 되고 잔여 22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다. 지난 큰 火災로 損害본 운성방직공장이 1/10정도 재건되고 있었다. 電子기계의 수출증진을 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에 의해 77년도까지 300業體가 完全入住하면 7억불수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豫見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외국의 의존도가 높은 각종 電子製品은 훌륭한 國產品으로 代置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 3시에 구미단지를 떠나 구름도 쉬어간다는 秋風續휴게소를 지나가다. 여기는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지는 곳이며 서울 부산간 428km의 한복판인 214km地點이다. 왼쪽에는 금강유원지이며 오른쪽 언덕위에는 慰靈塔이 보인다. 이탑은 高速道路 建設中 犧牲된 77名의 英靈을 달래고 이들의 청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겠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자신분의 명복을 빌었다. 가끔 우리들의 安全運行을 돕고 저하는 巡警車가 보인다.

석화리새마을

이번 일정의 마지막 시찰지이다.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속하고 있는 64家戶에 양잠 특설지구로 지정된 안정된 자립마을이다. 따라서 양잠사육시설의 근대화와 기술개발으로 잠업收益을 倍加로 올려 80年代의 1,000블록표로 삼는 의욕



〈석화리새마을에서 밥을 전달하는 洪英淑 시할단장과 梁莫芝사무극장〉

에 찬 마을이다.

새마을 운동은 산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앞에 있다고 본다. 이제 都市에서도 勤勉, 儉素, 協力으로 團結하여 全國民運動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항상 用意周到한 충북지부장 梁仁實理事가 淸州의 名物인 自然淸涼飲料에 어름을 채워 준비시킨 學校車가 대기하고 있었다. 비가 내릴듯 매우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全身을 풀어주었다. 淸州인터체인지를 지나 서울로 향한다. 鳥山을 지나 水原가까이에서 소나기가 한차례 쏟아졌다 무척 시원하게 느껴졌다.

우리 一行은 무사히 3泊4日の 日程을 끝마치게 됐다. 그간 江原道, 濟州道만 除外하고 유람한 셈이다. 視察距離는 1,200km 3백리 길이였다. 몇분이 消化不良症勢로 피로워 하였으나 시간엄수와 行動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었다. 終着地인 한국의 집에 도착하니 田山草會長님과 文公報課長님이 우리 一行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겨주셨다. 職場人인 同時に 中年을 넘은 어머니를 이엿건만 보내는 立場에서는 역시 걱정스러운 어린이 위치와 다른바 없었나 보다. 참으로 즐겁고 보람된 視察日程이었다. 우리 一同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오직 하나뿐인 祖國, 내가 태어나기 前 存在했던 祖國이 발전 되었고 繁榮途上에 놓여 있는 가장 소중한 한분이 祖國의 恒存을 위해 말은바 최선의 노력으로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히 出身道를 經由할때 마다 各支部長님의 간식등 뜨거운 배려를 잊을 수가 없다.